



故 홍성수 변호사
추모식 자료집

“독재체제 하에서 양심범들의 당당한 신념과 애국충정은 변호인들의 열띤 변론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면치 못했다. 현실의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은 무시되고 외면당했지만, 우리 변호인들은 확신했다.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아니 그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이성의 법정에서는 절대로 질 이유가 없다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인권변론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누구에게든지, 어디든지 달려가고자 했다.”

☞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를 그렇게 공들여 썼는데, 당시 판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열심히 쓴 이유는 뭘까요?

읽어라도 봐라는 거지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나 혼자라도 진실을 밝혀놓지 않으면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심정이었죠. 그렇게 해서라도 피고인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고 싶었어요. 양심범들의 소신을 보호해주자, 소신을 꺾지 않는 데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이것이 변호사로서 나의 역할이라 생각했어요.

☞ 돌이켜보면 어떠신지요?

그 때는 혼신의 힘으로 변론했어요. 참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차 례

-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식 순서 ————— 2
- 故 홍성우 변호사 약력 ————— 3
- 故 홍성우 변호사 주요 변론사건 ————— 5
- 인사말(김도형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6
- 추모사(박용일 변호사 / 민변 창립회원) ————— 8
- 추모사(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 11
- 추모사(한인섭 교수 / 서울대학교) ————— 14
- 1976, 이병린 변호사가 홍성우 변호사에게 보낸 서신 ——— 18
- 1976, 김지하 피고인에 대한 변론요지서 ————— 19
- 1983, 원풍모방 노동조합 탄압사건, 항소이유서 중에서 ——— 21
- 제3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 ————— 22
- 제3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소감 ————— 25
- 2011년 인권변론의 전설을 기록화 하기 ————— 32
- 한겨레신문 기고(김정남) ————— 38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추모 성명 ————— 41
-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식 사진 ————— 43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식 순서

- 일 시: 2022년 3월 19일(토) 오전 9시
- 장 소: 삼성서울병원 지하1층 영결식장
- 식 순:
 - 사 회 조수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약력 보고 조수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추모영상
 - 인 사 말 김도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추모사 1 박용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
 - 추모사 2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 추모사 3 장영달 상임대표(민청학련동지회)
 - 추모사 4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 유족인사
 - 헌 화

故 홍성우 변호사 약력

1938. 서울 출생

1951.9~1954.3 경기중학교 졸업

1954.3.~1957.3. 경기고등학교 졸업

1957.4.~196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61.10.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제13회)

1963.8. 군법무관시보 실무고시 합격(제12회)

1962.4. 해군 입대(법무관)

1965.6. 해군 법무관 예편(해군대위)

1965.11. 대전지방법원 판사

1969.1.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판사

1970.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1.10.27. 변호사 개업

1973. 서울제일변호사회 재무

1974. 서울제일변호사회 상임위원

1974. 민주회복국민회의 사무국장

1976~1989. NCC 인권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1979. 엠네스티 한국지부 조직담당 이사

1979. 카톨릭 정의평화위원회 인권분과위원회 자문위원

1986. 정의실천법조회(정법회) 결성 (28인)

1987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1987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198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결성
1988 한겨레신문주식회사 이사
199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간사
1995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4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2013.6. 제3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
2013.8. 제9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2022. 3. 16. 별 세

저작

2011 인권변론 한 시대 (경인문화사, 778쪽)
2012 인권변론자료집: 1970년대, I~VI (홍성우 · 한인섭편, 경인문화사)

故 홍성우 변호사 주요 변론사건

-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백낙청 교수 파면처분 취소소송
- 1975년 김지하 사건/ 선교자금사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들/ 한국일보 기자노조 사건
- 1976년 명동사건(3.1민주구국선언사건)/ 서울대 의대 간첩단 사건
- 1977년 청계피복 노조 사건
- 1978년 리영희 교수 필화사건/ 양성우 시인 필화사건/ 동아투위 민권일지 사건
-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오원춘 사건
-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원풍모방 노동조합 탄압사건/ 여성에 대한 정년차별 시정소송/ 웨어차일드 회사의 노동운동가 해고사건
- 19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조작사건
- 1984년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서울대 ‘학원푸락치’ 사건/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 영천기름집 살인사건/ 대우자동차 사건
- 1985년 삼민투 사건/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 대우어패럴 사건/ 민중교육지 사건
-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녹두출판사 사건/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보도지침 사건
- 1987년 제헌의회 사건/ 민중미학연구소 사건
- 1988년 전민련 사건
- 1991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
- 1995년 12.12사건(재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모두 힘들고 지쳐가는 시기에 황망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하면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깨끗하게 열어 나가셨던 홍성우 변호사님께서 지난 16일 세상을 뜨셨습니다. 홍 변호사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 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변은 홍 변호사님이 남기신 뜻을 기리면서 떠나시는 길을 추모하고자 조출하게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성우 변호사님은 1961년 고등고시 13회에 합격하시고 1965년부터 판사의 길을 걸으시다가 1971년 박정희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반발해 판사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한 ‘1차 사법파동’ 때 법복을 벗으시고 변호사로 일하셨습니다. 이후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서신 후 윤보선·김대중 긴급조치 위반사건, YH무역 노동조합 사건, 서울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채정신청 사건 등 주요 시국 사건의 변론을 맡으시면서 독재정권의 인권 탄압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1986년에 정의실천법조회를 결성하셨고, 2년 뒤인 1988년 민변이 창립된 후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대표간사 직을 맡아 민변의 기틀을 다지는데 힘을 쏟으셨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도 역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홍성우 변호사님과 맺은 인연과 지니고 계신 추억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젊은 시절 홍 변호사님을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어린 후배들에게 엄숙하게 대하면서도 자상한 미소를 머금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홍성우 변호사”는 “험난했던 독재정권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앞장선 불굴의 인권변호사, 법정에서 선 양심수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새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홍 변호사님이 여셨던 인권변호사의 길을 뒤따르고자 하는 후배들은 고인이 남기신 업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추모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 홍성우 변호사님의 생전의 뜻과 활동을 되짚어 보고, 우리 삶의 자세를 다잡을 수 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유족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추모사

존경하는 홍성우 선배님을 추모하며

민변 박용일 변호사

지난 1970 -80년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아래 그 참담한 시절 인권변호사의 표상이던 선배님! 오랫동안 병환으로 고생하시면서도 귀하게 보관하던 변론자료들을 『인권변론의 한 시대』 1권과 『인권변론 자료집』 6권을 역사에 남기고 떠나신 선배님!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오랫동안 뵙지도 못하고 간간히 소식만 전해 듣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다니 너무나 슬프습니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선배님을 모시고 정법회(정의실천법조인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어렵게 만들어 변호사들도 민주화 운동 전면에 나선 때가 엇그제 일 같고 그때가 그립습니다.

특히 정법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많은 변호사들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가세하였고 그 결과 항쟁을 주도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에 참여, 당면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감격을 맞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이은 대선 때 야권의 김영삼, 김대중의 분열로 민주항쟁의 성과는 반 토막 났고 단식농성까지 하신 단일화파인 선배님과 저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선배님이 그렇게 아끼던 후배 조영래 변호사(1990년 사망)와 친구 황인철 변호사(1993년 사망)가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것도, 어쩌면 선배님의 병환도

야권분열로 인한 시대의 아픔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배님이 조추모(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모임)를 만들어 오랫동안 이끌어 온 것도 조추모회원 뿐만 아니라 민변 후배들을 아끼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에서 일 것입니다.

창립 당시 50여명이던 민변 회원은 1200여명으로 늘었고 그 활동 영역도 넓어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화 운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두 선배님이 만들고 이끌어주신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정법회나 민변 설립 당시는 회원 사이도 매우 친밀하여 선배님은 당시 저에게 ‘행동파’ 라며 때로 꾸짖기도 하고 ‘젊은 날의 나를 보는 것 같다. ‘고 격려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선배님은 1971년 사법과동 때 변호사를 시작, 3년 후 민청학련 사건 때부터 황인철 변호사 등과 인권변론을 시작하여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많은 사건을 변론하여 민청학련 관련자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과 평생 동안 동지로 지나 온 것은 보기만 해도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귀한 인연은 오로지 선배님의 민주화운동이란 대의와 양심범의 양심을 지켜내려는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법회 결성 무렵부터 뒤늦게 인권변론을 시작하였으니 선배님의 지사적인 삶에 기대어 저도 인권변호사라는 허명을 얻은 것 같습니다.

선배님은 그 엄혹한 시절 어렵게 살아오셨으나 소위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평생 큰 보람을 느끼고 후회 없이 살아오셨음을 선배님 말과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후배들은 선배님을 따라 이제는 보통명사가 된 인권변호사의 길을 열심히 뒤따라 왔습니다. 선배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생전에 좀 더 가까이 모시지 못하였음이 몹시 후회스럽습니다.

그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도 2명이나 키워냈고 또 한명이 등장할 것을 굳게 믿었으나 어처구니없게도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신출내기 당선자가 등장하였으니 1987년 대선 때만큼이나 난감하고 앞날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이나 기후 재앙 등은 고사하고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심각한 불평등 등 당면 문제가 크게 걱정이나 남은 저희는 언제나처럼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한평생 대단히 수고하셨고 매우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2022년 3월 19일 민변 후배 박용일 드림

추모사

고(故) 홍성우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이찬진 변호사

-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해 정의와 사법권 독립을 외친 30대 소장 법관
- 사법 엘리트의 보장된 삶을 던지고 올곧게 정의를 실천한 1세대 대표적 인권변호사
- 기득권을 누릴 만한 50대에 ‘민변’ 설립에 이어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하여 조직법률가 운동과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변호사님

변호사님 상가에 문상을 한 직후 참여연대 새로운 집행부로부터 추모사를 부탁받아 보니 단체에서 짧게나마 변호사님을 모시고 함께 하였던 사람이 저밖에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수 년 전 영등포 모 병원으로 찾아 뵈 때만 하여도 의식이 또렷하시고, 비록 휠체어지만 최소한의 이동도 하셔서 꽤 차하시리라 기대하였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시니 평소 더 찾아뵈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법대 재학시절, 제 짧은 주관적 기억으로 홍성우 변호사님을 대표 격으로 한 70년대부터 1세대 인권변호운동을 하여 오시던 대선배님들은 학생운동 언저리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우상이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홍 변호사님 등 인권변호사님들은 현장노동운동에 투신하던 또 다른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부채의식을 극복하는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시던 자랑스러운 어른들이셨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 어깨 너머로 보아 왔던 정법회에서의 변호사님의 활동상과 민변 결성을 주도하시고 시국변론에 앞장서시는 활약상을 보면서 92년 당

시 민변 대표이신 홍 변호사님을 먼발치에서나마 모시고 저 자신도 민변 변호사로의 전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단지 법률가운동의 굴레에 머무르시지 않으셨습니다. 90년대 시민사회운동이 태동되던 시절, 학생운동 출신의 현장운동가들과 진보적인 학계와 법조운동을 주도하던 그룹, 인권운동을 주도하던 그룹의 지식인들이 ‘참여민주사회’와 ‘인권’, ‘시민연대’를 기치로 새로운 시민사회운동 조직인 ‘참여연대’를 결성하던 1994년 당시 홍성우 변호사님은 법률가 운동의 대표격으로 조직 결성을 주도하시면서, 자신의 사회적 신뢰 자산을 오롯이 참여연대 공동대표로서 쏟아 붓고 걸음마 단계의 참여연대의 초석을 다져 주셨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후배인 박원순 변호사님에 가려져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참여연대에 많은 원로, 소장 법률가님들이 결합하여 시민사회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흐름은 홍 변호사님이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자산을 아낌없이 참여연대에 투사해 주신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먼저 저희 곁을 떠나신 고 김창국 변호사님, 고 최영도 변호사님을 참여연대가 모실 수 있었던 것 역시도 홍성우 변호사님의 참여연대에서의 첫발자국이 인연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를 떠나신 후에도 홍 변호사님은 참여연대의 고문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매우 조심스런 말씀이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홍 변호사님으로부터 70년대 ‘민청학련’ 사건 등에서 인권변호 도움을 받았던 일부 소장 정치인분들의 요청으로 짧게나마 정치개혁 운동에 뛰어 들었고, 그 결과 아주 짧은 기간 중 당직을 가지시기도 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 역시 당시 ‘레짐화 되었던 3김 정치’의 ‘청산’이라는 대의를 좇은 지식인의 현실참여로 저는 이해합니다. 정치활동의 결과 변호사님은 단 한시도 그 스스로 기득권을 탐하지 아니하셨고, 그 어떠한 공직도 취하지 않은 채 선비적 삶을 살아 오셨다는 것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활동해 오는 지식인들, 특히 법률가들에게 이러한 홍 변호사님의 삶의 궤적은 ‘현실참여’와 관련한 각자의 생각과 자세를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 변호사님을 문병차 뵈었을 때 사모님으로부터 소박하고도 시니컬한 남편 자랑을 들었습니다. ‘이 양반이 평생 동안 도움 준 게 하나 있다.’ 시면서 ‘70년대 무슨 생각인지 강남구청 인근 단독주택을 마련해서는 그것 하나는 지키고 살게 해줘서 몇 해 전 집 팔아 이사한 후 경제적 어려움 없이 투병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생활을 하는 동안 우연치 않게 원로 변호사님을 모시고 지낼 수 있던 영광을 누리기도 했는데 1세대 선배 인권변호사님들의 떠나신 후의 자리를 보면, 꼭 조선시대의 ‘사림’ 선비들의 깨끗한 삶과 닮으신 것을 느낍니다. 홍 변호사님도 예외가 아니실진데 하물며, 사모님의 지극한 간병과 사랑까지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언감생심 저 자신의 끝은 저러지 못할 것임을 잘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어려운 언행일치의 삶이 무엇인지 홍 변호사님이 떠나시는 이 자리에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실행위원들, 회원들은 참여연대를 세우신 그 초심과 변호사님의 삶의 궤적을 기억하면서 흐트러지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자랑스런 스승이자 선배이신 홍성우 변호사님!

부디 고단한 삶을 뒤로 하시고 저 세상에서 평화로이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2022년 3월19일

참여연대를 대신하여,

(전)집행위원장 이 찬 진 드림.

고 홍성우 변호사를 기리며

한인섭 교수

로스쿨에서 <법조윤리>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가끔 변호사윤리강령을 낭독하게 한다. 그 첫 번째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이다. 이때 자주 홍성우 변호사님을 떠올리며 설명을 보태곤 한다. 굴곡 많은 우리 현대사에서 유신·5공 체제 하에서 법조인들은 “회한과 오욕에 찬” 시절을 보내야 했고, 법원은 “권력의 시녀,” 검찰은 “정권의 주구”로 지탄받았다. 이러한 암흑기일수록 본래 사명에 충실한 변호사가 더욱 필요한 법이다. 그 소임을 기꺼이 짊어졌던 일군의 변호사들을 일컬어 ‘인권 변호사’라 했다. 그 중심에 홍성우 변호사가 있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공포하여 학생과 민주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여,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을 만들었다. 악명 높은 정보·고문 기관에 끌려간 이들에겐 가족 면회도 엄금되었고, 서슬푸른 기세에 모두 몸을 사렸다. 그런데 뜻밖에 몇몇 변호사들이 나섰다. 매일이 지옥이었던 학생들에게 변호사들과의 만남은 “저승에서 부모님을 뵈는 것처럼 반가웠다” (장영달)고 한다. 재판은 비상군법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적법절차는 철저히 유린되었다. 변호사들은 이런 식의 재판이면 “사법살인”이나 마찬가지로 맞섰지만, 항의하던 변호사마저 법정에서 끌어냈다. 홍성우 변호사에겐 민청학련 사건이 시국사건 변론의 첫 사건이었다. 그런 사건에 발 디딘 대가는 혹독했다. 사건 수임도 끊기도, 사무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다. 이쯤 되면 물러설 법하지만, 그는 달랐다. 오히려 시국사범 인권변론의 한길로 매진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엄청난 고난과 위해가 닥쳐올 게 뻔할지라도, 진정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면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김정남 회

고). 이런 혹독한 시련을 혼자 감당하기란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 그는 다른 변호사들을 끌어들이었다. 이렇게 황인철, 홍성우, 이돈명, 조준희 등 변호사들은 ‘인권변호사’가 되었다. 돈 안 되는 사건, 유죄를 면하기 어려운 사건들일수록 이들에게 몰렸다.

이들을 일러 “패소전문 변호사”라든가, 이들에게 가면 이길 사건도 진다는 비아냥도 따랐다. 지금 자세히 자료 검토를 해보니 정반대다. 법정에 “칼이 섰던” 무시무시한 시절에, 죽을 뻔한 사람을 여럿 살려냈고, 고문과 조작을 성공적으로 폭로해낸 건 다반사다. 흥 변호사 소신은 이랬다. “현실의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은 무시되고 외면당했지만, 우리 변호인들은 확신했다.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아니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이성의 법정에서는 절대로 질 이유가 없다고!” 그러한 믿음으로 인권변호사들은 고난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누구에게든지, 어디든지 달려갔던 것이다.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 서서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적법절차의 실현을 요구하고, 때로는 국가권력과 싸우는 전사이기도 하다. 첫째로 요구되는 자질은 성실성이다. 1975년 한국일보 기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고 해고하고 탄압한 사건에서 해직기자들은 이렇게 회고한다. “홍성우 변호사는 처음부터 무료변론을 맡아주었다. 기자들에겐 더할 수 없는 원군이였다. 흥 변호사는 노조의 7년 소송을 모두 맡아주었는데,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결같았다.” (이창숙 회고)

변호사는 열정과 집념이 있어야 한다. 1985년 민청련 김근태 의장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라는 “인간도살장”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있겠구나 짐작하고 흥 변호사는 어떻게든 접견하고자 애썼다. “김근태가 검찰에 넘어왔다는 소식들 듣고 댕바람에 서울구치소로 갔어요. 가니까 없다고 해요. 할 수 없이 도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접견하러 가고 또 허탕 치고, 그다음날 또 가고. 헤아려보니, 모두 12번 허탕을 쳤습니다.” 겨우 13번 만에 첫 접견을 해낸 짧은 순간을 활용해서 흥 변호사는 고문피해 사실을 듣고 고문흔적이 남아있는 발뒤꿈치를 볼 수 있었다. 이로부터 조작공안사건은 고문규탄사건으로 확 바뀌게 되

었다.

1980년대 초엔 간첩조작사건이 횡행했다. 그중에서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은 최악질이었다. 그는 회고한다. “이 사건을 접하고 공소장 보고 하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 다 죽게 생겼더라고. 몇 달 동안 이 사건에 미쳐 다녔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건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고 변호사들을 모으고 재야 쪽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결성된 흥 변호사팀은 ‘간첩단 사건’의 고문과 조작을 폭로하고, 법정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했다. 그리하여 송씨일가 사건은 최종 판결까지 무려 7심급을 거쳤다. 대법원에서 파기를 두 번이나 해 ‘핑퐁재판’이라 불렸다. 끝내 유죄판결로 종결되었지만, 애초 날조조작의 상당 부분은 무력화되었다. 그때 변호사들의 재판투쟁과 변론기록은 재심무죄판결을 내리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후일담이다.

흥 변호사는 피고인, 양심수들의 소신을 지켜주는 것을 자신의 일차적 책무로 여겼다. “변호사로서, 정치범들 양심범들 변호하면서, 나의 최소한의 역할은 그 사람의 소신을 지켜주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고문 받고 힘들어도 그 소신을 떳떳이 지키는 게 양심범들이 나갈 길이라고 생각해요. 소신을 굽히고 억지 전향시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긴 인생을 놓고 보면 그것참 잘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 자체는 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의지로 생각을 바꾸어야지 권력이나 압력 때문에 소신을 꺾으면 사람이 망가져요. 인간적 자존심과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변호사 일이지요.”

흥 변호사는 노동자와 여성의 인권 옹호에도 앞장섰다. 1982년 원풍모방 여성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했다고 모멸과 핍박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일처럼 분노했다. 그가 쓴 항소이유서 초고를 보니, 짹짹 눌러쓴 필압의 형적이 지금도 여전했다. “오로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그 누구에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외치고 증거하고 있다. 오늘날 이 나라의 그늘진 산업사회의 희생양이 된 이들의 수난은, 가난하되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길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듯 흥 변호사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면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록화하고자 힘썼다.

홍 변호사가 쓴 변론서를 보면 공들여 쓴 흔적이 역력하다. 그렇게 써봐야 재판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는데 왜 공연한 헛수고를..., 이런 의문이 들 법하지만, 그의 자세는 이랬다. “읽어라도 보라는 거지요. 나 혼자라도 진실을 밝혀놓지 않으면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심정이었죠. 또 그렇게 해서라도 피고인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고 싶었어요.” 절망의 시절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기준을 엄정히 세워야 함을 일깨워 준다.

한 명의 인권변호사 활약은 다른 변호사들을 인권변론의 대열에 끌어들이게 되고, 작은 팀이 점점 커다란 조직으로 발전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조영래, 이상수 등 변호사들이 가세해 연대변론의 방식을 개척하면서 ‘정법회’를 결성하고, 나아가 1988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을 결성한다. 홍 변호사 등은 이제 연장의 지도자로서 모임의 대표 역할을 맡게 된다. 이후 민변을 주축으로 하여 민주화, 인권, 소수자 보호 등 공익인권변론의 도도한 흐름으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변호사들에게는 기록이 쌓이고 쌓여 어느 단계에 이르면 버리는 게 일상이다. 그러나 홍 변호사는 “그 기록들을 차마 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암흑기의 민주화투쟁사를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혹 세월이 좋아지면 패소했던 재판기록을 찾아서 재심재판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 기대. 이 때문에 이 자료들을 버린다면 뭔가 죄짓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 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홍 변호사는 그 기록을 대학에 모두 내어주었고, 나는 이를 받아 학생들과 함께 정리하고 자료집도 냈다. 그 기록들은 인권변론 및 민주화운동의 사초로서, 쓰여지지 못한 우리 현대사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다.

필자가 홍 변호사와 한 본격적인 인터뷰는 <인권변론 한 시대>(2011년)라는 책으로 간행되었다. 대담을 마치며 홍 변호사께 물었다. “돌이켜보면 어떠신가요?” 자필로 쓴 자료를 뒤적여 음미하면서 홍 변호사는 답했다. “그때는 혼신의 힘으로 변론했어요. 참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日

獨吟

年去年來又一春 白髮揮處友情新
誰作病老難別苦 梅下分手與故人

떠나면서

故友여 恭安 하라 北岳도 갈았거라
南陽千里 가는 길에 北風 空을 몰아치니
눈물도 얼을 사하여
손手中에 담노라

良心囚

벽돌도 차기니와
人心도 어나보다
격장수리 소식이야
말듯 말듯 하다마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네 가슴이 아와라

1976, 김지하 피고인에 대한 변론요지서

그 어떤 공산주의자가 이토록 목마르게 민주주의를 갈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공산주의자가 이토록 실박한 음성으로 자유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절대로 거짓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시인이 어떤 목적이건 자신의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기 위하여
거짓된 작품을 썼다면 이는 이미 문학작품으로써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이며 독자에게 터럭만한 감동조차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 외은 김지하의 짙막한 시 한편에서 김지하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래속에 넘쳐 흐르는 김지하의 진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그의 파는 목마름과 놓타는 정열이 이토록 뿌듯한 감동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입니다.

부디 이 법정외 판결이 김지하 피고인의 이 진실을 극명()하게
빛속에 들어내는 훌륭한 판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1976, 김지하 피고인에 대한 변론요지서

1976. 12. 23.

피고인의 변호인

변 호 사	박 세 경
· 동	이 돈 명
· 동	이 세 중
· 동	조 준 덕
· 동	황 인 칠
· 동	홍 성 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8 부

귀중

1983, 원풍모방 노동조합 탄압사건, 항소이유서 중에서

특히 정선순 피고인은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적박한 상황을 당하여 10여시간이나 폭도들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이제 굶하지 아니하고 끝내 1,000명 조합원을 거느린 조합장으로서
의 외연한 자세를 지켰다는 점은 참으로 감동적이 아닐수 없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진것도 없지
만, ^{고귀한} 고귀한 것을 앎고,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마도 지켜야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이 사태에 아브켜주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가 그 누구에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외치고 몸거하고 있는
것이여 오늘날 이나마의 그늘진 산업사회의 희생양이된 이들의
수난은, 가난하되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모든사람들의 삶속에서
같이 기억될 것이다.

변호사 홍 성 우 법률사무소

서울·중구 서소문동55의4 (배재빌딩503호)

제3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



제3회 진실의 힘 인권상

결정요지

30년 동안 인권변론의 한길을 걸어온 홍성우 변호사님은 불법적인 범 집행과 불공정한 판결이 일상화된 군사독재 시절 대변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피고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사기관으로, 교도소로, 법정으로 바빠 뛰며 양심수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건넸습니다. 단순한 변론을 넘어선 고문과 폭력에 맞서 싸운 생애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1. 홍성우 변호사는 무엇보다 고문 수사실을 벗어난 고문피해자들이 맨 처음 만난 핵심 대화자(interlocutor)였습니다.

1980년대 이 땅의 고문피해자들, 수많은 김근태들에게, 권인숙들에게, 홍성우 변호사는 첫 '대화자'였습니다. 수감 일 동안 지하 고문실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몸은 그 수사실에서 풀려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문에 묶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 저질렀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의 실태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문사실을 폭로했다가 다시 끌려가는 경우도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변호사라 소개한 이가 실제로 변호사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의 상태에 놓여있는 게 고문피해자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문피해자들 앞에 맨 처음 손을 내민 사람, 그 존재의 의미는 인간 이상의 의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문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죽음같은 경험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압니다. 홍성우 변호사의 진심과 정성은 고문피해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고문생존자는 용기내어 말할 수 있었고 어두운 시대를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김근태가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홍성우 변호사는 그를 만나기 위해 날마다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접견을 시켜주지 않아 12번이나 허탕을 치면서도, 변호사가 다녀갔다는 말이 김근태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김근태를 접견하러 다녔다는 일화는 그가 고문피해자들에게 어떤 사람이기를 원했는지 보여주는 일례일 뿐입니다. 누구보다 고문피해자의 처지와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3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

1. 홍성우 변호사는 고문을 척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정비하는데 한 몫을 다했습니다.

고문은 고문을 직접 당한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행위 뿐 아니라, 고문 가해자와 고문을 묵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욱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고문은 전체 공동체의 의지와 존엄을 파괴하고 손상시킵니다. 우리가 고문실태를 폭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문이 제도화되지 않도록,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고문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을 하여 고문의 실태를 폭로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법적,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1985년 서노련 사건 당시 김문수씨가 고문을 당했을 때 홍변호사는 증거보전신청, 대한변협 조사 청원 등의 방법으로 고문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김근태 사건 때는 고문경관을 고발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등 변론활동을 주도했고, 이를 통해 형사절차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권인숙 사건 때는 변호인단이 직접 고문수사관을 고발하였고, 재정신청,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 등의 방법을 통해 고문수사관들을 직접 단죄하려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조작간첩 사건에서 홍성우 변호사의 활동입니다. 그는 고문에 의해 방북했다는 허위자백을 하게 된 이들의 알리바이 입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재일 교포 윤정현 사건, 송씨일가 송기준 사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안기부의 협박 속에서 변호사의 존엄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의 노력은 최근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한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은, 홍성우 변호사의 활동이 고문 가해자들의 목적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고문은 한 인간의 정체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힙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존엄과 의지를 파괴합니다. 홍성우 변호사는 고문 피해자를 처음 만난 변호사로서 인간적인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의 절대적 지지와 공감은 사람에게 대한 믿음을 상실한 고문피해자들에게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구축하는데 가장 큰 밑바탕이 됩니다. 고문이 목적인 인간과 세계에 대한 믿음의 파괴를 막아낸 것입니다.

홍성우 변호사는 “양심범의 소신을 지켜주는 것”이 인권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건넸습니다. 고문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고문가해자를 법정에서 끌어내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홍성우 변호사의 활동은 고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큰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3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

1. 홍성우 변호사는 7, 90년대 기록을 보존하고 한인섭 교수와 대담을 통해 그 사건들과 의미, 교훈을 정리해서 남기는 방대한 작업을 마쳤습니다.

모든 언론이 권력의 통제아래에서 정상적인 보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 홍성우 변호사는 자신이 기록하고 변론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때의 피고인들이 이 자료를 찾아서 재심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 기대” 때문에 2, 30년 동안 기록을 보존해온 것입니다. 그가 남긴 기록은 그의 기대대로 역사를 정리하는데도, 재심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더 나아가 7, 80년대 암흑으로 고통스런 한 시대와 그 어두운 시대를 헤쳐 나온 고귀한 숨결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 30년 동안의 인권변론이 단순한 변론을 넘어선 고문과 폭력에 맞서 싸운 저항과 헌신의 역사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록을 통해 고통 속에서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일궈낸 수많은 이들의 위대한 걸음을 읽습니다. 다시는 고문과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아야한다, 고문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얻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과 땀에 빛지고 있는지를 다시 떠올리며,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려는 다짐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제3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소감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저를 수상자로 불러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재단법인 진실의 힘과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진실의 힘 재단을 창립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여러분의 열의를 생각할 때 부족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1971년에 유신체제가 선포되고 긴급조치가 줄줄이 발령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폭압적인 군사독재체제가 기승을 부릴 무렵 저는 우연히 인권변론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법조계 대선배로 군사독재체제에 맞서 가열찬 저항운동에 앞장서신 이병린(李丙璘)변호사님을 “멘토”로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1974년경 그 분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를 결성하여 이사장을 맡으셨는데 엠네스티운동의 이념이 정치범 사면과 사형제도 폐지, 그리고 고문 방지였습니다. 당시 민청학련 사건 등을 변론하면서 양심수(Prisoner of conscience)문제에 관심이 많던 저는 엠네스티운동의 이념에 심취되어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 무렵 이병린 이사장님을 사적으로 모신 자리에서 이병린 변호사님이 6.3.사태시의 계엄령 철폐투쟁, 72년경의 유신헌법 무효화투쟁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불법 연행되어 혹심한 고문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분에게는 심한 수전증 증상이 있었습니다. 글씨를 쓰실 때 손이 심히 떨려서 써 놓으신 글씨는 마치 벌레가 기어 간 자국처럼 뺄뺄하여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그 수전증이 수사기관에서 당한 혹심한 고문의 후유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분이 특별히 엠네스티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시게 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병린 변호사님은 당시 연세도 60이 넘는 고령이었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두 번이나 재임하신 법조계의 원로, 어른이셨습니다. 이러한 사회지도층의 유력인사조차 아무 죄도 없이 수사기관에 불법 연행되어 혹심한 고문을 당했는데도 그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하거나 고소, 고발조차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면 하물며 이름도 힘도 없는 민초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비인간적이고 잔인무도한 고문의 악습이 뿌리를 내리고 자행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많은 고문피해자들이 이를 고소, 고발하여 응징하고 단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48년 건국과 함께 선포된 대한민국의 형법 125조에는 어엿하게 고문방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재판, 검사, 경찰 등 인신구속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한 때에는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이 법조문은 거의 사문화되어 왔습니다. 1950년대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 6,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 80년대의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공산주의자나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또는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암묵리에, 그러나 공공연히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음침한 밀실에서 끔찍하고 잔인한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고 공산주의자라고 허위자백을 하면서 인간의 모든 자존심과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선량한 한 가정의 가장이 하루 아침에 간첩이나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 가정이 그대로 박살이 나버리는 비극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법정 활동을 통해 경험한 사건들은 이러한 사건들의 극히 일부에 해당할 것입니다.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을 시작으로 김지하 시인 반공법 위반 사건, 서울의대 간첩단 사건, 남민전 사건,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

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조동윤 씨 일가 간첩단 조작 사건, 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 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현·조일지 간첩 조작 사건, 민주위·삼민투 사건, 민청련의장 김근태 고문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 제가 7,80년대에 맡은 사건들에는 모두 경찰, 정보부, 군수사기관 등이 저지른 잔인한 고문의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민청련 김근태 의장이 법정에서 그가 당한 잔인한 고문의 참상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용기를 보이고 부천서 사건에서 권양이 성고문이라는 전대미문의 야만적 고문의 실상을 폭로하는 용기를 보이기 전까지, 왜 우리의 고문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고발하지도, 응징하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고문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공포심입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해행위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야만적 행위가 고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고문의 공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고문은 무고한 시민을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허위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평생 자기 고향을 떠나 본 일이 없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평양에 가서 밀봉교육을 받고 납파된 간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건강하고 신념이 투철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고문 앞에서는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고문의 피해자는 고문으로 당한 고통을 기억하는 것만도 끔찍하며, 그러한 고통을 다시 당하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문의 경험은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포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문사실을 고발할 용기를 낼 수 없게 만듭니다. 고문피해자들은 허위 자백한 내용을 번복하거나 고문피해 사실을 폭로할 경우, 다시 고문자들에게 끌려가 똑같은 고문으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포를 감내하고라도 고문사실을 법정 등에서 고발하고 폭로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제가 말았던 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고인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는 그래도 억울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지 않을까 하고 수사기관에서 고문당한 사실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자백한 사실 중 월북해서 평양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고 왔다는 부분이라도 좀 빼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는 “이 사람 아직도 정신이 덜 들었군” 하면서 조사실을 나가고 곧바로 옆방에서 대기하던 수사기관원(고문가해자)들이 들어와 다시 조사받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피고인은 그대로 항복해버렸습니다.

고문은 경찰, 군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국가권력에 의하여 밀실에서 제3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극심한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무력감과 좌절감, 그리고 공포심을 극복하고 국가권력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폭로할 수 있게 하려면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어주고 성의 있게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해 줄 수 있는 국가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과 법원입니다.

그런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수사·정보기관에서 당한 고문 피해를 검찰이나 법원에 고발하고 호소해 본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고문으로 날조한 허위 자백에 기초해서 피해자를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그 이름과 권한에 어울리는 역할을 해 주리라는 믿음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포기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내신 이병린 변호사와 같은 분조차 자신이 당한 끔찍한 고문을 고발하지 못하신 것도 다시 또 끔찍한 고문의 보복

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고발해 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체념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의 힘을 만드는 데 참여한 고문피해자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했던 사건들 가운데 수사과정의 고문 문제를 법정투쟁의 주요 내용으로 다룬 사건들에서 변호인인 저에게 제일 어려웠던 일은 고문피해자들인 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당한 고문사실을 법정에서 폭로할 수 있는 용기를 내도록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정어린 설득으로 피고인과 깊은 신뢰를 쌓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고문의 공포 속에서 자신이 당한 고문의 참상을 스스로의 의지로 만천하에 고발하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1985년 김근태 민청련의장의 고문폭로 사건은 이 땅에서 고문 폐지 운동의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고 김근태 의원은 바로 진실의 힘 인권상의 제2회 수상자이므로 여러분들이 그의 수난과 투쟁의 경과를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믿기에 이 자리에서 다시 자세한 말씀을 피하겠습니다마는 그가 그 혹독한 고문의 고통 속에서도 가해자들의 세세한 인적사항까지 완벽하게 기억해 가면서 후에 반드시 고문내용을 고발하리라는 의지를 다졌고 끝내 법정에서 이를 만천하에 고발했다는 것은 참으로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던질 수 있다는 필사의 각오와 결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초인적인 용기 덕분에 김근태 고문폭로 사건을 전환점으로 하여 이 나라의 비문명국가적, 야만적인 고문수사의 관행은 뿌리가 뽑혀져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수많은 학생운동 조직 사건들에서도 수사기관에서 당한 고문피해를 법정에서 당당히 밝히는 용기 있는 고발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1987년의 6월항쟁이 힘찬 동력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사사건, 특히 정치범들에 대한 형사법정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변호사는 공포와 좌절, 무력감에 빠진 채 감옥에 갇힌 피해자를 다시 이 세상

과 연결시켜 주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당한 범죄를 폭로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내용이 사회에 알려지도록 노력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더 이상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 역할에 대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또 변호사의 도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법정에서 외롭게 호소해야 했던, 혹은 호소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참혹한 고문의 아픈 경험을 겪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인간이 고안해 낸 악행 중에 고문처럼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범죄행위는 없습니다.

고문은 피해자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파괴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존엄, 인격, 자존심, 생의 의의까지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는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으며 어떻게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로 남게 됩니다.

고문은 가해자의 인간성까지도 파괴해 버립니다. 고문가해자는, 일시적으로는 국가안보 같은 명분을 위해 불가피한 필요악이라도 되는 듯, 허위의식에 빠져 가해행위에 가담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행위가 인간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가장 무도한 범죄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세상에 알려질까, 자신과 가족들이 평생 그 죄과를 짊어지고 치욕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세상의 눈을 피해 평생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1987년의 6월항쟁이래 이 땅에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정부를 선택하고 언론의 자유가 회복되는 등 정치적 민주화가 크게 진전했습니다. 특히 근래의 전자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은 인터넷 언론이나 SNS통신망의 활성화 등 국가권력의 횡포를 고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발달하여 오늘날 고문퇴치 운동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전야에서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외치던 구호를 기억하십니까?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과연 고문 없는 세상은 오고 있는 것일까요? 언제 또 국가안보 운운하는 그럴싸한 거짓 명분을 들고 나오면서 고문의 악습을 재현하려고 기도하는 음침한 악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문을 비롯한 국가폭력은 그 피해의 위협에 놓여있는 시민들의 용감한 고발 정신과 타인의 피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분노할 줄 아는 언론과 시민운동 단체들의 투철한 감시를 통해서만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변의 도움도, 사회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국가폭력에 무방비로 내던져져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되어 오랜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만든 진실의 힘은 깨어 있는 시민의식의 본보기라고 하겠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낸 힘을 모아서, 아직도 숨어 있는 고문 조작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과거는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그들과 연대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야만적인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우리 인간이 비록 약하지만, 폭력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귀한 사례입니다. 진실의 힘이,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더욱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 인권변론의 전설을 기록화 하기(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1972년부터 1987년까지는 우리 역사에서 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정점에 이른 시기였다. 독재가 강화될수록 그에 대한 저항도 가열차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민주화운동은 구속과 재판, 감옥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정권의 폭압에 항거한 학생, 노동자, 지식인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으며, 생업에 종사하던 어부, 농민, 재일동포들도 어느 날 갑자기 간첩으로 조작되었다. 이 시기의 정치사, 사회사, 법제사를 쓰려고 한다면 형사재판이라는 장을 비껴갈 수 없다. 그 시기는 언론의 암흑기였으므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제대로 이해될 수도 없다.

그러면 그 대안은? 당시의 재판기록을 통해 그 시대의 고난과 꿈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 갖고 있는 터에, 같은 대학의 정인섭 교수로부터 홍성우 변호사님이 그 시기의 재판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역사적 자료이므로, 학문적 목적을 위해 반드시 대학의 자료실로 넘겨받아 정리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홍성우 변호사가 누군가? 유신체제와 5공체제의 암흑기에 권력의 횡포에 신음하던 이들을 위해 나선 인권변호사의 상징 아니던가. 당시 인권변론의 길을 같이 걸어간 소수의 변호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상 인권변론의 전반을 앞장서 이끌어간 변호사가 홍성우 변호사라는 사실은 여러 후배 변호사들과 관계자들의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였다. 안 그래도 홍변호사님으로부터 그 시대 인권변론에 얽힌 속깊은 이야기를 진하게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터에, 방대한 변론기록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접하고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평소 한결같은 성심으로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는 안영도, 윤종현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그 인권변론의 자료들은 결국 대학으로 와야 한다는 점을 홍변호사님께 은근히 말씀드렸다.

홍변호사님은 자료를 내주시는 데 주저함이 적지 않았다. 내놓더라도 “10년

후에나 내놓겠다”는 취지였다. 이유도 충분히 납득될 만했다. 우선 관련 피고인들에게 자료의 공개가 행여나 불이익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어쩌나 하는 변호사로서의 우려도 있었고, 자료에 대한 충분한 부연설명 없이는 오해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에 일일이 검토하고 의견을 정리한 뒤 넘겨주시겠다는 신중함도 있었다. 더욱 최선의 변론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밖에 못했나 하는 자괴감도 자주 피력했다. 자료가 많다고 해도 한 사건씩 들여다보면 체계적이 못되며, 사라진 기록들이 너무 많다는 자탄도 하셨다. 그런 우려, 신중함, 자괴감, 자탄을 들으면서 나로서는 홍변호사님의 진면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입장에 대해 나는 나름대로 강력한 반론을 폈다. 자료는 정리하되 오직 학문적 목적으로만 공개될 것이라는 점, 재판기록을 당사자로서 보는 것과 제3자로서 보는 것은 다를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본인은 충분한 변론이 못되었다고 자탄할지 모르지만, 당시 그토록 최선을 다한 변호사들이 달리 없으며, 그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 역량이나 성의의 탓이 아니라, 수많은 일거리를 안겨준 그 시대상황의 탓일 것이다. 어쩌면 그 부족함조차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강부회도 폈다. 끝으로 사라진 기록이 많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기록만으로도 어떤 변호사, 어떤 운동가의 그것보다 훨씬 풍부하며, 그 자체로써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는 훌륭한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더욱 모든 기록은 홍변호사님이 작성했거나 보관한 것이지만, 그 기록들은 변호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유산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홍변호사님은 나의 이런 억지 섞인 주장을 결국 수용하시고, 당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후학들에게 좋은 교육적 자료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모든 자료를 대학에 내어주시는 결단을 보였다.

학교에 이 자료를 갖고 와서 보니, 처음엔 이를 어떻게 분류하여 정리해야 할지 난감했다. 대학원생들과 함께 먼지 쌓인 기록들을 분류, 정리하는데 거의 1년이 소요되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오직 그 기록들이 안겨주는 긴장감과 생생함에 압도되어 이런 정리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1차 정리작업을 마치고 보니, 문건은 총 1207종, 4만6천쪽에 이르는 분량이었다. 재판기록 이외의 관련 자료들이 아직 미정리상태로 남아있는데, 그것도 대충 1만쪽을 헤아린다. 이러한 정리작업에는 서울대 석박사과정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는 신진기예들이 참여

했다. 김현숙의 책임하에 임보미, 김동혁, 장다혜 등의 수고가 컸다.

자료를 사건별로 정리하고 나니, 홍성우 변호사의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의 궤적과 그 시대의 윤곽이 보였다. 컴퓨터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된 터라, 이제 기록을 보면서 홍변호사님의 증언을 얻고자 했다. 평소 늘 “100시간 이상의 아주 상세한 증언”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해왔고, 홍변호사님도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본 증언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6시 사이에 홍변호사님은 서울대 법대 회의실로 출석하여, 2010년 2월 11일까지 총 15주, 약 60시간동안 증언을 이어갔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였지만,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말씀하시면서 대략적인 감을 잡았다.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인상에 남는 사건부터 증언하기로 했다. 대체로 한 주에 2개 내외의 사건을 다루었다. 이 금요일 오후의 특강(?)을 위해 홍변호사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무실에서, 본인이 몇십년 전 작성한 기록들을 읽으며 메모를 해왔고, 그 메모를 보면서 진술을 이어갔다. 대담자는 홍변호사님의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은 질문을 거의 자제하고, 진술을 일단락하는 즈음에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개입하여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임의적으로 끊지 않으려 했다.

증언 내용은 VOD에 담고 따로 녹음을 했다. 이 정도 분량의 증언을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다행히 서울대 법대의 학생들이 자원봉사의 형태로 기꺼이 도와주었다. 녹취한 학생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 귀중한 증언을 청취하는데 몰입하여 시종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다. 이 녹화, 녹취작업에 참여한 여러 학생들 중에서도, 김영중의 책임 하에 차영욱, 강화연의 수고가 특히 컸다.

이렇게 녹취작업을 완료한 파일을 받아, 한인섭은 2010년 6월부터 전체의 목차를 짜고 재판기록을 다시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사건별로 정리해갔다. 그 시대 그 사건 속으로 파고들어가노라면 분노, 흥분, 열정이 한여름밤을 사로잡아 잠 못 이루는 때도 많았다. 그 시대의 희로애락 속에 폭 담그고 살아가면서 작

업을 끝낸 것은 8월 말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초고에 대해 홍변호사님은 수많은 수정과 보충 작업을 하셨다. 이 초고를 여러 변호사들에게 회람시켰던 바, 안영도, 박성민, 정영일, 윤종현 변호사가 초고에 대해 귀중한 수정의견을 주셨다. 또한 서울대 법학대학원의 여러 학생들과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초고를 읽고 후학의 입장에서 의견을 냈다.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 일정한 역할을 했고, 홍변호사와 변호인-피고인으로 관계를 맺었던 분 중에서 정영일, 신인령, 백태웅, 안병용, 신형식, 이부영 등이 초고상의 오류를 지적해 주었으며, 홍변호사님과 변론에 동참하기도 한 후배 변호사인 박원순,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가 여러 곳에 수정의견을 내주셨다. 또한 이 책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민주화의 숨은 기여자인 김정남 선생은 대학을 방문하여 장시간 증언을 해주셨고, 홍변호사와 대질(?)하여 서로의 기억을 더듬으며 정확성을 기하려 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여 도움을 주신 것은, 이 책이 그 시대를 증언하는 하나의 정사(正史)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홍변호사님이 끼친 감화력이 얼마나 큰지 느끼게 해주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부러움이었다.

이 책은 본문만도 7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그 분량은 준비한 초고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덜어낸 결과이다. 홍변호사님이 소중한 시간을 온통 다 바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변론 내용은 이보다 훨씬 많다. 책의 말미에 인권변론연보를 만들었지만, 그 연보조차 그의 변론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시대에는 사건변론에 너무 바빠 아예 기록조차 하지 못한 사건도 적지 않고, 충실히 기록했으나 그 기록 자체가 사라진 것들이 적지 않은 탓이다. 홍변호사님은 관련 피고인들에 얽힌 가치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증언할 수 없음을 거듭 안타까워했다.

이 책의 가치가 무엇일까 판단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다. 대담자로서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증언자 홍성우”의 일관된 성실성이었다. 당시의 인권 변론 기록들을 보면 그 철저함에 압도된다. 200쪽이 넘는 변론요지서도 있고, 며칠밤을 새워가며 작성한 항소이유서의 초고도 흔하다. 변호사가 아무리 성실하게 변론서를 작성해도 재판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억울하고 핍박당하는 이들의 변론을 대충 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다. 재판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읽어라도 보라는 심정으로 썼다고 한다. 피고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활동의 의미와 정당성을 정리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때로는 역사의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철저함을 기하려 했다. 이번 증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홍변호사님은 충실하게 자료 하나하나를 읽고 철저히 준비한 상태에서 증언에 임했으며, 정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삼갔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자료를 통해, 또 사건관련자를 통해 거듭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또한 증언대상 사건들로부터 몇십년을 경과하여 그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그는 결코 감정의 과잉을 보여주지 않았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기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판결을 보면서, 그는 그 검사, 판사들에게 인간적으로 모진 말씀은 거의 하지 않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하려는 따뜻함을 보여주셨다. 또 하나는 공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을 끝없이 겸손하게 비워내는 자세였다. 늘 자신의 약점, 아쉬웠던 점을 말했지 우리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다는 언급을 자제하였다. 본문에서 당신의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를 말하는 대목은 그 시대의 공과가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대담자가 계속 질문을 쫓아 비로소 얻은 답변들임을 유념했으면 한다.

당시의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말한 대로 ‘회한과 오욕에 가득찬 시대’라고 명명될만한 그 참담한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법률가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인가. 법관을 ‘권력의 시녀’라 하고, 검찰을 ‘권력의 주구’라 매도해도 할 말이 없었던 시대, 수많은 변호사들도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시달리는 귀찮음 때문에, 가장 변론을 필요로 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외면하였다. 그 시대에도 ‘기본적 인권의 수호와 사회정의’에 헌신했던 법률가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어찌면 기적같이 보이기도 한다. 달리 말하자면 어두운 시대였기에 인권변호사라는 보석이 탄생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의 인권변호사들은 참으로 자신들을 위한 공치사에 할 줄 모르는 분들이다.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조준희 이 분들을 겪어본 분들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자랑할 줄 모르는 체질임을 익히 알 것이다. 그들에게 쏟아질법한 명예와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활동을 기록화 하는 것조차 자제하였다.

그럴수록 대담자로서의 임무는, 정확한 기억과 기록을 통해 그 시대 인권변호사의 활동을 객관화하고 그림으로써 한 시대 법률가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각오로 이 작업에 임했다. 후배 교수의 온갖 억지와 투정을 온화한 웃음으로 받아주신 홍변호사님의 넉넉함에 무엇보다 감사드린다.

아울러 ‘변호사 홍성우’에 더하여 ‘인간 홍성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로 인해 이 책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윤종현 변호사의 변함없는 성실함과 진지함, 그리고 대학 측에서는 김현숙 박사의 성실함이 보이지 않은 밑거름이 되었음을 특기하고 싶다. 이 책의 출간과 함께, 민주화운동과 인권변론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당시의 피고인들과 변호인 사이에 대화 한마당의 잔치를 열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갖고 있다. 아울러 후학들이 이 책을 통해 한 시대의 고난과 꿈을 이해하고,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때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

한겨레신문 기고(김정남)

옳은 길이라면 차마 거절 못하는 마음

부담스런 변론은 언제나 그의 몫이었다

그때 그 사람

‘형산대형’ 아호 가진 홍성우 변호사

2008년 7월4일 ‘바가지 산우회’의 총무 전병용이 “형산대형 홍성우 변호사가 칠순을 맞게 되었으니 다 같이 한번 모여 축하하자”는 내용의 회람을 돌렸다. ‘형산’(兄山)이란 아호는 산우회원들 중 연장자라 해서 지었는데, 전병용은 우리 모두가 맏형처럼 존경하고 받들어 모신다는 뜻으로 ‘형산대형’이라 썼다.

그의 삶 자체가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남을 위해, 그것도 불의에 짓밟히면서도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으로 일관된 삶이었으니, 나도 이런저런 뜻에서 그를 일러 대공이라 부르고 싶다.

돌이켜보면 나는 40년 가까이 그와 한 시대를 살면서 그의 향훈을 맡으며 살아왔으니, 그것이야말로 나에게겐 은혜요 지복이었다.

1974년 가을이였을 것이다. 나는 덕수궁 앞 광학빌딩에 있던 황인철 변호사 사무실에서 홍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그때 나는 두 변호사에게 막 결성하려던 민주회복국민회의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

두 변호사는 나의 요청을 흔쾌히 승낙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홍 변호사는

민주회복국민회의 사무국장의 직책까지 맡기에 이르렀다. 법정 밖의 아픔에까지 동참하면서 수난도 시작되었다. 당시 상임대표위원은 유형중 신부였는데, 그분은 연만하신데다 병중이었다. 따라서 민주회복국민회의는 홍 사무국장, 함세웅 대변인 체제로 이끌어 갔고, 나는 그 뒷시중을 들었다.

이때도 홍 변호사는 남산에 끌려가 견디기 어려운 곤욕을 치렀다. 몇몇 운영위원이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못 이겨 사퇴서를 쓰기도 했다. 홍 변호사의 집에는 협박전화가 오고, 때로는 섬뜩한 문구에 붉은 글씨로 쓰인 협박전단이 집안에 던져져 있기도 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설사 엄청난 고난과 위험을 가져올 것이 뻔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면 그것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듬해 그를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다시 끌어들었다. 칼이 서 있던 그 법정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나 부담스러운 변론은 언제나 그의 몫이었다. 나는 늘 뒤에서만 거드는 척했을 뿐, 돌을 맞는 것은 언제나 홍 변호사였다. 80년에는 변호사 업무조차 강제로 휴업해야 했다. 그래서 늘 미안하다. 특히 그 가족에게는 큰 죄를 지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았다.

82년의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은 해방 이후 첫 ‘반미’ 구호를 내건 사건인 까닭에 변호인들도 무척 조심스러워했다. 당시 이돈명 변호사가 사목회장으로 있던 세종로성당의 사제관 방에서 내가 변론 요지서의 초안을 작성했다. 가장 민감한 ‘방화의 동기와 목적’ 부분은 역시나 홍 변호사가 맡았다. 결심 때 홍 변호사가 한 변론의 마지막 부분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이 사건이 한국에서 한국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과 존엄을 확인하는 계기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으로 불의의 희생을 당한 고 장덕술군의 죽음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 임하여 최종적으로 느낀 소회는 과연 그 누가 민족의 이름으로써 감히 이들에 대하여 돈을 던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70~80년대를 통틀어 나는 그 전반기에는 홍 변호사 사무실에, 그 후반기에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 아닌 출근을 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주요 문건을 작성하고, 타자나 복사를 해야 할 때도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문건이 두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한번은 해위 윤보선 선생이 홍 변호사를 사무실로 찾아왔다. 해위는 늘 홍 변호사의 인권변론 활동을 고마워해 직접 휘호를 써보낸 적도 있었다. 나도 합석해서 담소를 나눴는데 해위가 나가자마자 정보과 형사들이 득달같이 달려왔다. 해위가 왜 왔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할 수 없이 그들이 떠날 때까지 내내 책상 밑에 쪼그린 채 숨어 있어야 했다.

홍 변호사는 칠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천진한 구석이 많다. 예전에는 가수 배호와 이용의 노래를 좋아하더니 한때는 태진아의 ‘옥경이’를 진지하게, 있는 힘을 다해 불렀다. 절창이란 아마도 것처럼 부르는 자세를 두고 말함이 아닐까. 김용택이나 정호승의 좋은 시를 술자리에서 들려주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것을 보면 그는 아직도 영락없는 문학청년이다.

아직은 누가 뭐래도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이가 많다. 그를 어떤 모임에서는 농담 반 진정 반으로 지존이라 부르기도 한다. 바가지 산우회에서 그는 종신회장이다. 몇 년 전 식도암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지만, 지금은 잃었던 건강도 많이 회복했다. 할 말은 끝이 없지만, 생과 사에 대한 인디언의 송사를 빌려 이 글을 맺는다.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 세상은 울고 당신은 기쁘게 눈감을 수 있기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추모 성명

고(故) 홍성우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서슬 퍼런 유신시절과 암흑했던 군사독재시절, 보장되어 있던 편안한 삶을 사직하고 고난의 짐을 자청한 그때부터 변호사님의 삶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변호사님은 시민, 학생, 노동자, 민주화 운동가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곁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인권변호사의 중심이셨고, 우리 모임 창립의 주역이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인권변호사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군사독재 탄압에 저항하는 양심수들을 변론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며, 경찰 공권력에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법적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탈냉전시대 통일운동에 대한 변론에 앞장서고 청년 학생들의 억울함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임은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반독재투쟁,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본인의 역사적 사명으로 여겨 앞장섰던 변호사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변호사로서 보람이자, 생기가 나는 일”이라며 주위를 둘러봤던 변호사님의 모습은 현실에 지쳐 힘들어 하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변호사님은 우리 모임의 전신이자 인권변호 활동의 첫 단체였던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의 창립멤버였고 우리 모임의 첫 운영을 책임졌습니다. 변호사님이 힘들게 개척했던 가치 있는 삶, 진실을 기록하고 밝히려 치열하게 노력하는 삶, 한 사람의 인권 운동가로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셨던 삶, 그리고 넓고 따뜻한 가슴을 지닌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오래 기억하고 본받겠습니다. 변호사님과 같이 후배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의 고단함과 어려움 다 잊으시고, 부디 편안히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식 사진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식 사진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식 사진



자료 제공: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 1976, 이병린 변호사가 홍성우 변호사에게 보낸 서신
- 1976, 김지하 피고인에 대한 변론요지서
- 1983, 원풍모방 노동조합 탄압사건, 항소이유서 중에서
- 제3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
- 제3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소감
- 2011년 인권변론의 전설을 기록화 하기(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 한겨레신문 기고(김정남)